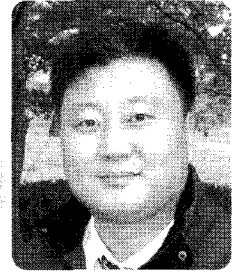


【특집 I : 2012년 축종별 배합사료산업 전망】

## 양돈 사료산업 전망



박 병 배

(주)팜스토리한농 도드람B&F 마케팅 팀장

2011년 구제역 여파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지만, 2012년은 매물농장들이 새롭게 재건되어 힘차게 출발할 예정이다.

구제역이 우리산업에 남긴 상흔은 너무나도 컸지만, 농장 재건을 통해 새롭게 정비하고 출발하는 만큼 양돈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시간을 다소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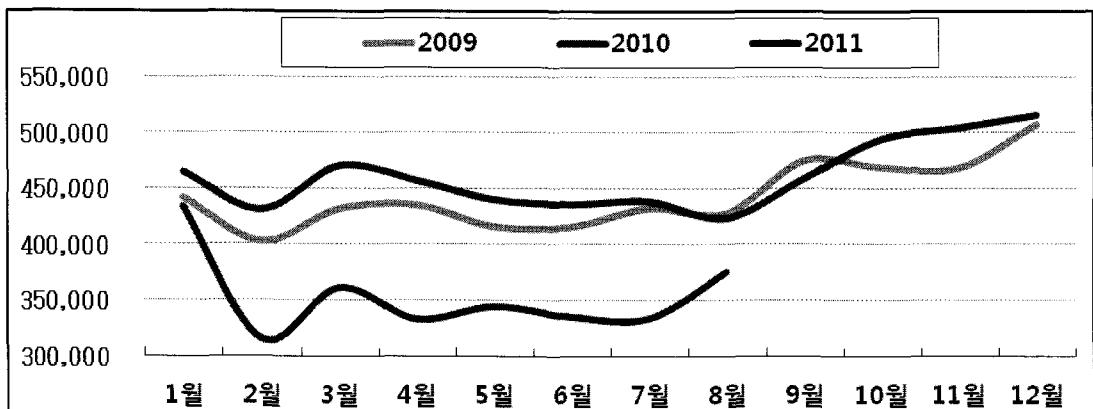
매물 농장들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PCVAD를 야기하는 바이러스를 털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미흡했던 시설들을 보완하는 계기가 된 바, 재건이후 과거에 비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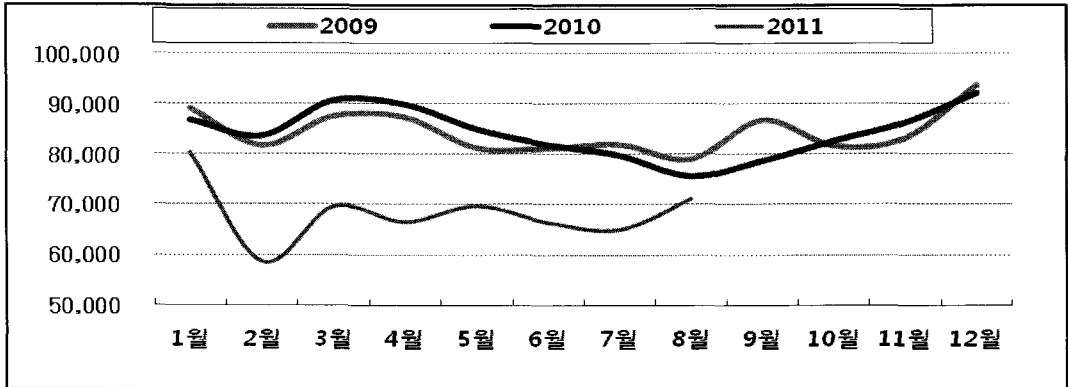
현재의 재건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2년도 시장을 예측해 본다.

### 1. 2011년 양돈사료 생산량

구제역 매물로 상반기 약 20% 가까이 양돈사료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농장



<그림 1> 연도별 양돈사료 생산량



<그림 2> 모든사료 생산량

재건이 본격화되고 총사육두수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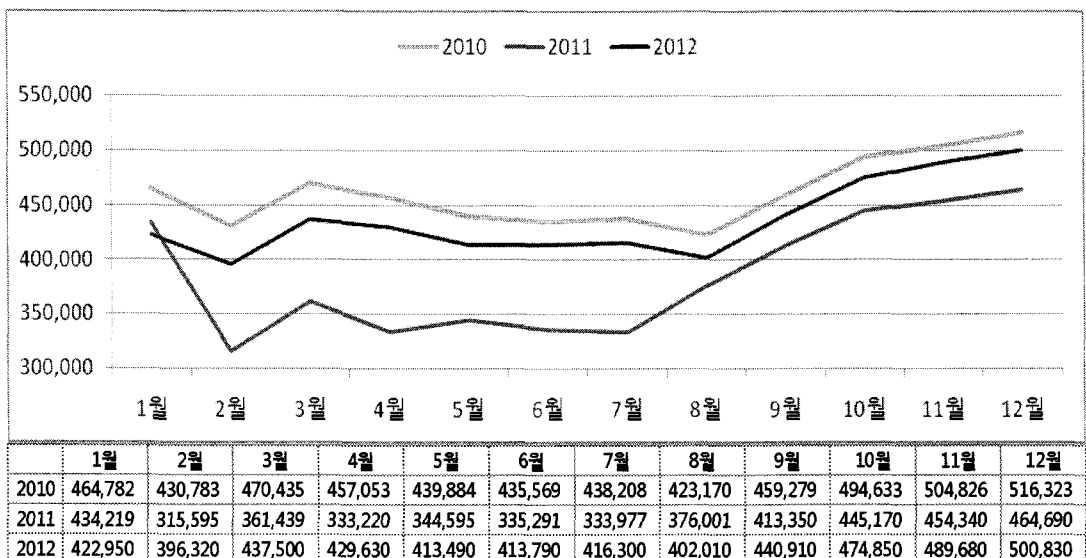
반기에는 구제역 이전의 사료생산량수준(97%)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 2. 2012년도 양돈사료 생산량 예측

2011년 하반기 농장들의 재건이 94%이상 완료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2012년도 하

## 3. 유통시장 전망

구제역발생에 따른 갑작스런 시장감소는 우리 양돈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시켰다.



<그림 3> 2012년도 양돈사료 생산량 추정



돈육 공급량 부족을 채우기 위해 수입육 23만톤이 무관세로 들어 오면서 국내 자급을 기반이 휘청거리고 있다.

4분기 소비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수입돈육의 재고량 증가는 돈가를 더욱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12년 시장이 회복되게 되면 수입육에 의해 침범 당했던 내수시장은 한시적 혼란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수입육재고 증가와 국산돈육의 공급 증가가 동시기에 맞물리게 되면 돈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자급을 시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대국민 소비 홍보추진과 더불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돈육 생산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 4.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제언

유럽 양돈 강국들은 이미 국가 평균 MSY가 25두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해 도산하는 농장이 많다고 한다. 유럽 경제불안과 소비 위축에 따른 돈가하락이 원인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구제역 이전 우리나라 평균 MSY는 15~16두 수준에 불과하였다.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우리 양돈산업 생산성 저하의 주범이었던 PCVAD의 피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며 재건농장들은 과거보다 위생수준이 대폭 향상되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는 것이다. 또한 향후 3년동안 최적의 산차 구성이 완료되면 최고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년뒤에는 국가 평균 MSY가 20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농장과 관련단체들의 합심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구제역 이후 높아진 위생수준 또한 생산성을 올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부터는 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되고, 성장촉진용 항생제는 2011년 7월부터 전면 중단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농장의 생산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만 한다.

MSY 24두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국산 신선 돈육시장을 확고히 다진다면, FTA시대에도 우리 양돈산업은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